

#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수빈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808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23일

발 의 자: 박수빈, 강동길, 김성준,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태수, 박강산, 박 석,  
박승진, 박유진, 박철성,  
서준오, 성흠제, 송도호,  
송재혁, 아이수루, 오금란,  
왕정순, 우형찬, 유정희,  
이민옥, 이병도, 이상욱,  
이상훈, 이소라, 이승미,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환, 임규호, 임종국,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한 신 의원(37명)

##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날로 심해지고 있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오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교부금제도, 재산세 공동과세 등 지방재정조정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제시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오랫동안 강남 위주의 개발과정에서 잉태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 확충, 인프라 투자, 관련부서 신설 및 조례 제정 등 다각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서울의 불균형 구조는 나아지지 않고 더욱 심해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서울의 강남북 간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바로잡아 서울시민 누구나 형평성 있게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64조  
 2)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3) 「지방세기본법」 제7조~제10조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5)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6)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제12조  
 7)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제5조

### 4. 이송처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시는 오랫동안 재정적·공간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서울의 지역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일로만 걷고 있어 서울시정의 중요한 현안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 민선 3기 때부터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강북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인프라 투자, 조정교부금 차등 교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여러 유형의 균형발전 정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었지만, 비강남 시민들은 지금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더욱이 최근에는 재정조정 효과가 감소되는 추이를 보이며 자치구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십수 년 전부터 시의회와 국회가 서울시 지역불균형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며 발전격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지만, 집행부는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슈로 인식해 후순위 과제로 취급하거나 당면과제가 되더라도 자치구의 상황을 핑계로 임기응변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로 일관해 향후에도 어떠한 자발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노력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 특히,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자치구 간 세원 불균형을 완화해 서울시 전체적으로 수평적 재정균형을 이루고 서울시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시행 후 15년이 지났지만 현재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애초에 강북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강남북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고취시키고 관련

주체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향 설정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실국의 재정균형발전 TF 구성, 법 개정 건의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연구, 전문가 및 자치구 의견수렴, 토론회의 장 마련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재정조정 관련 제도의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간 재정 형평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궁극적으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균형있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 정책의 방향타를 제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24. 4.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